

건축문화 사랑방

광주·전남·전북 건축사회 신문

News 2020.08.129호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전라남도건축사회
전라북도건축사회

GWANGJU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5 T. 062.521.0025 F. 062.528.0026

발행인: 강원규, 조연준, 이길화
창간일: 2009년 11월 10일

02 시론

간이 버스정류장 _ (故) 정기용 건축사를 기리며

03 종합

사랑에서 _ '공공건축 설계공모' 선진화 방안 시행을 보며
법령소식

04-05 전북 지역 뉴스

전북건축사회, '중국 감소성-제7회 지공상 건축 및 환경설계 공모전' 공고
전주시, 저소득층 주민 주거불편 해결하는 해피하우스 사업 홍보 나서
전주시, 노후화된 인후·반촌 주민쉼터 쾌적하게 탈바꿈

06-07 광주 지역 뉴스

광주광역시, 공공건축 설계공모 참여 기회 대폭 확대
제24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9월 25일까지 우수 건축작품 공모접수
광주건축사회 주관, 2020년 제17회 건축·도시사진공모전 진행

08-09 전남 지역 뉴스

전남건축사회, 회원사 직무능력향상교육 실시를 위한 실무회의 개최
여주시,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로 '건물의 가치를 올리세요'
여주시, '문수지구 도시재생 뉴딜' ... 7월부터 본격 추진 나서

10 설계경기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무등야구장) 설계경기

11 종합뉴스

특별기고 _ 광주천을 활용한 도심 열섬화 현상 완화 및
도시기후조정 그리고 관광벨트 구축 제언
조선대학교 건축학과, 학과소식지 'ARCHI_VE' 5권째 발간 나서

12 독자광장

책 소개 _ 영화로 더 나은 세상을 꿈꾸다
한 편의 시 _ 뚫린 수도물
세상사는 느낌 _ 과제전을 통한 학기의 마무리

<http://gjkira.kira.or.kr>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

건축문화 사랑을 스마트폰에서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코드로 접속하신 후, 해당 건축
문화사랑을 클릭하시고 홈페이지에서 개별
PDF파일을 다운받으시면 구독 가능합니다.



간이 버스정류장 _ (故) 정기용 건축사를 기리며



최상철 논설위원

건축사사무소 연백당
대표 건축사
ybdscs@naver.com

- 1993. 12. - 현재
〈건축사사무소 연백당〉
대표 건축사 /
한옥, 생태건축, 문화재
실측설계
- 1994. 10. - 2008. 6.
전북일보에 〈건축상담〉,
〈최상철의 건축이야기〉
연재
- 2004. 10. - 2005. 3.
전민일보에 〈건강한 집,
건강한 생활〉 기획연재
- 2010. 4. - 2011. 12.
월간 자치광장에 〈최상
철의 집이야기〉 연재
- 2012. 1. - 2014. 12.
월간 열린전북에
〈삶과 건축〉 연재
- 저서로는
〈내 마음을 두드린 우리
건축〉, 〈내가 살던 집 그
곳에서 만난 사랑〉,
〈전주한옥마을〉(공저)

이제 우리 사회에서 “기다리는 공간”은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 날로 치열해지는 속도경쟁 탓이다. 스마트 폰도 그렇고, 교통수단도 그러하며, 또 우리의 일상생활도 마찬가지다. 어느 것 하나 속도에 휩쓸리지 않는 게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참, 그리고 보니 예전에 마을 입구마다 우두커니 서 있던 동구 밖 정자나무, 또 그 옆 어디쯤에서 물끄러미 웅크리고 있던 간이정류장, 게다가 담배연기 자욱한 다방, 그리고 발을 들여놓을 때마다 시골벽적 요란하던 대합실(待合室)……, 정말 그 많은 “기다리는 공간”은 어디로 사라져버렸을까?

문득, 예전에 무심코 흘러들던 가곡 “기다리는 마음”이 뇌리를 급히 맴돌다 사라진다.

“일출봉에 해 뜨거든 날 불러주오. 월출봉에 달 뜨거든 날 불러주오. 기다려도 기다려도 남은 오지 않고, 빨래소리 물레소리에 눈물 흘렸네.”

그래,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정말 어디에서 그 “남”을 기다려야 하는 걸까? 그것마저도 에스엔에스(SNS)? 아니면 점차 현실처럼 다가오는 VR(가상현실), 거기에 한 발 더 나간 듯 이제 문화재 복원에서 조차 활용되기 시작한 증강현실(AR)의 세계……?

만해 한용운은 “남만 남이 아니라, 기른 것은 다 남”이라 하였건만, 이제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어느 남 하나도 제대로 기다릴 수 있는 공간이 상실된, 참으로 삭막한 길목들이 어디쯤을 허둥지둥 지나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그 쓴살같은 세월의 속도에 아랑곳하지 않은 채, “기다리는 공간”에 주목한 이가 따로 있었다. 10여 년 전 어느 꽃피는 춘삼월, 이승의 무거운 짐을 훌훌 털어버리라고도 하듯 홀연히 우리 곁을 떠난 정기용 건축사가 바로 그다. 스스로 건축계의 “공익요원(公益要員)”으로 자처하며, 남들은 들여다보지도 않는 작은 공간에 더 많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쏟던, 그는 정말 남다른 건축사(建築士)였다.

목욕탕 하나 없던 무주군 어느 시골 소재지에, 이른바 “천 원짜리 목욕탕”을 처음 설계한 이도 그였고, 완행버스를 기다리느라 허드레 시간을 속절없이 보내야 하는 주민들에게 좀 더 따뜻한 간이정류장을 설계한 이도 그였다. 아니, 그보다, 봉하마을 노무현 대통령의 사저(私邸) 설계자가 바로 그였다고 하면, 더 귀가 번쩍 뜨일 것이다.

돌이켜보면 그는 마지막까지 자기 신념을 실천해왔던, 이 시대의 양심이었다. 병색이 완연한 몸으로 무주 공설운동장에 다니러 간 그는, 주변 환경과의 관계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등나무 옆에 높다랗게 설치된 태양열 집열판을 보자마자 버럭 화를 내며 욕을 내뿜는다.

“개 같은 새끼들!”

뜨끔했다. 그것은 좀 더 따뜻한 공간을 만들어내려고 평생을 고군분투한 건축사가, 이 몰염치한 사회에 우리를 대신해서 퍼부은 일갈(一喝)이었던지도 모른다. 어쨌든 그의 주장은 한결같았다. 건축설계는 “사람들의 삶을 보살피고, 공간적으로 조직해주는 일”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공공건축물은 더욱더 그래야 한다고 믿었다.

무주 공설운동장 관람석에 등나무 그늘을 드리운 것도 마찬가지다.

무슨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행정당국에서는 주민들의 참석을 종용하지만, 막상 가보면 내로라하는 인사들만 햇빛을 피해 본부석에 들어가 앉아 있고, 막상 주민들은 땀방울에서 인상을 찡그리며 기다려야만 한다. 이에 “사람들의 삶을 보살피는 일”에 소홀했다고 생각한 그는, 곧바로 그 생각을 “공간적으로 조직하는 일”에 착수했다.

무주군 몇 군데 마을 앞에 지금도 서 있는 간이정류장 역시, 그때 그의 따뜻한 심성이 유난히 더 묻어나는 소품이다. 사실 무엇인가 관심을 두지 않은 채, 그저 막연하게 기다려야만 하는 시간은 무료하기 그지없는 일이다. 시골 간이정류장은 더하다. 이웃 마을에 갈 때도 그렇고, 소재지에 장 보러 나갈 때도 그렇고, 몸이 불편하여 읍내 병원에 다녀와야 할 때도 그렇다. 자주 운행되지도 않고 또 도착시간이 들쭉날쭉한 시골 완행버지만, 어쩔 수 없이 무작정 기다려야만 한다.

그는 그 사소한 시간과 공간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지금까지와는 뭔가 다른 “기다림의 공간”을 연출해 놓은 것이다.

보통 간이정류장은 황량한 들판 한쪽에 위치하게 된다. 그래서 어느 정류장이든 외롭고 쓸쓸하기 그지없다. 그 풍경을 희석하고자 우선 두꺼운 콘크리트 벽체를 우뚝 세워서 안정감을 확보한 뒤, 간이정류장 뒤편에 큰 창을 뚫어 저 먼 풍경을 내부로 살짝 끌어들이 놓았다. 그리고 거기에 마치 창에서 오려낸 듯한, 사각형 덩어리를 앞으로 90도 회전해서 주민들이 앉을 의자를 배치해놓았다. 자연스럽게 간이정류장 내부에서는 기다리는 사람들끼리 시선이 교차된다. 의도된 연출이었다.

어차피 무심히 흘러가는 짧은 우리네 인생에서 마주치게 되는 수많은 ‘대기시간’들, 그것이 설령 “찰나(刹那)”와 같은 순간일망정 서로 외면하지 말자. 이 황량한 들판에 쏟아지는 햇빛 한 조각과 같은 상대의 눈빛 하나라도, 또 스쳐 지나가는 바람 한 줄기와 같은 객쩍은 농담 한마디라도 서로 외면하지 말자.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간이 버스정류장은 오늘도 절 찾는 사람들에게 “기다리는 시간”의 무료함을 덜어주고 있다. 기다리는 대상은 모두 다 “남”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마지막까지 그렇게 건축에 열정을 쏟던 그가 죽음을 앞둔 어느 날, 병상에 누운 채 주변 사람들과 함께 숲을 찾아가다. 거기에서 그는 “나무도 고맙고, 바람도 고맙고, 하늘도 고맙다.”라는 말을 유언처럼 남긴다. 아마 그 겸허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작고 소외된 공간 하나하나에도 지고지순한 사랑을 불어넣을 수 있었나 보다.

그런데 무주에서의 그의 헌신적인 건축실행이 끝난 지 어느덧 10년 남짓, 지금 그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 또 당초 그의 의도는 무지한 이해관계자들의 손에 의해 굴절되고, 때로는 심하게 훼손되어 가고 있다. 그가 한때 그렇게 고민하며 설계한 간이정류장에 앉아 있자니, 더욱더 그의 생전 모습이 삼삼하게 떠오른다.

“개 같은 새끼들!”



간이 버스정류장



이광원&조선희 법률사무소

이광원, 조선희 변호사는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건설인들과 끊임없이 소통하여 건설현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건설현장의 상황에 대하여 법원을 설득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 구조 공학박사 및 기술사 자문그룹, 건설전문로펌 법무법인 '이강'의 이동원 대표변호사와의 협업 및 자문을 통하여 가장 효율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광원 변호사|

- 전남 영광 출생
- 광주 국제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활동
- 광주 동구 젠트리피케이션 전담 법률지원단 '젠트리닥터' 위원
- 광주YMCA 시민권익변호인단 단원

|조선희 변호사|

- 전남 강진 출생
- 영암여자고등학교 졸업
- 전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전남대 산업대학원 건축공학과 수료
- 광주광역시 건축위원회 위원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지원단 자문위원

사랑에서 _ 예순아홉 번째

‘공공건축 설계공모’ 선진화 방안 시행을 보며

광주광역시 ‘공공건축 설계공모’ 선진화 방안을 8월 4일부터 시행하였다. 검토 배경은 첫째, 공공건축물 디자인 품질 제고를 위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등 개정에 따른 설계공모 확대 시행에 대응이며 둘째, 공정하고 투명하며 전문적인 심사 필요성 대두 셋째, 공모 참여비용 부담 경감을 통한 참여도 제고 필요 넷째,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한 우수 디자인 당선 인식 확산으로 지역 신진건축가 이탈 예방 및 양성 필요성이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개정에 즈음하여 광주광역시가 상반기에 바쁘게 기준을 마련하여 올해 8월 5일 시행 첫걸음을 댄 것은 바람직하다.

첫해 시행을 통해 문제점을 발굴하여 연차별로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하는 일이 숙제로 남아있다. 어떤 정책도 완벽할 수는 없다. 다만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며 참여하는 우리에게 시스템이 건강하게 정착되고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책무가 따른다.

왜 이 정책을 시행해야 할까?

설계공모 참여도를 높이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설계공모의 참여도가 저조한 이유는 무엇일까?

제출도서의 간소화는 참여도를 높일 수 있을까?

공정하고 투명하며 전문적인 심사는 무엇을 의미할까?

사업계획의 수립과 검증의 과정은 어떤 전문성이 필요할까?

설계공모 주관조직의 효율성과 전문성은 지속성이 있을까?

공모진행 및 행정절차에 대한 평가 및 보완은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

발주처 및 관계자의 목표는 무엇일까?

심사위원회와 개별 심사위원의 목표는 무엇일까?

공모 참여 회사의 목표는 무엇일까?

발주처 및 관계자의 의무는 무엇일까?

심사위원회와 위원 의무는 무엇일까?

공모 참여 회사의 의무는 무엇일까?

목표와 의무는 어떻게 인식되어야 할까?

목표와 의무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웃과 우리의 자녀 그리고 우리의 후대를 위한 배려, 더 나은 삶을 만들어나가는 기쁨, 초석이 되는 게 대의적 목표이고 대의적 의무가 아닐까 생각한다.

각각의 조직과 구성원에게 부여된 목표와 개별적으로 인식하는 지향 목표가 얼마나 일치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이다. 또한, 그 노력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내가 동참하였는지에 따라 시스템과 공동체의 완성도는 달라질 것이다. 스스로 노력하고 변화해야 한다. 노력한 만큼 가치를 인정받고 인정해야 건강한 사회이다. 우리 가족에게, 우리 동료에게, 우리 이웃,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후대에 나는 어떠한 해야 할까? 비록 그 노력이 적고 미흡하나마 하나하나 쌓여 장소의 광주를 넘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미래의 삶 광주를 만들어 간다는 소명 의식과 책임 의식으로 함께 해야 할 것이다.

자문위원 _ 정명환 건축사(a2700@daum.net)

법/령/소/식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http://www.moleg.go.kr) 또는 대한건축사협회(http://www.kira.or.kr) 법령정보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주요 내용

- 가.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경미한 변경사항(안 제25조)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 근거 마련
- 나.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형 지구단위계획 지정대상(안 제43조)
 - 일반주거지역도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형 지구단위계획 지정 가능지역으로 포함
- 다. 불법 개발행위 원상회복명령 시 서면통지 절차(안 제59조)
 - 행정청이 불법 개발행위에 대해 원상회복명령 시 조치할 내용과 그 기한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절차 보완
- 라. 주거지역과 숙박시설의 이격거리 기준 명확화(안 별표 7~11)
 -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주거지역으로부터 조례가 정하는 거리 밖에 건축하는 경우로 명확화
- 마. 성장관리방안 통한 계획관리지역 난개발 방지(안 별표 20)
 - 1)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을 미리 수립한 경우에만 공장·제조업소 입지 허용 추진
 - 2) 적용 시기는 수도권·대도시(인구 50만 명 이상)와 그 연접 시·군은 시행령 개정 후 3년 이후, 그 외 지역은 지역별 공장 밀집도, 공장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 개정 후 5년 이후 및 7년 이후로 차등화
- 바. 농림지역에 농업기계수리점 입지 허용(안 별표 21)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도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 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등 11인)/의원 발의

▶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이하 “공사중단 건축물”이라 함)은 도시미관을 저해시킬 수 있으며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 공사중단 건축물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공사중단 초기에 찾아내기 어려워 장기간 방치 가능성이 높아지며 공사중단의 원인 해결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공사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 건축주가 공사중단신고를 하도록 하고 공사를 재개하는 경우 공사재개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공사중단 건축물을 초기에 찾아내고 방치 가능성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 21조의2 신설 등).

※ 이번 호 만평은 심상봉 건축사의 개인 사정에 따라 휴재합니다.

건축문화사랑

2009년 11월 10일 창간

- 발행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 발행인: 강현구, 조연준, 이길환
- 창간발행인: 신정철, 김강수, 이성엽
- 역대발행인: 심상봉, 안길진, 국원식, 김남중, 윤문곤, 정명철, 박용득, 전병갑
- 초대편집인: 박홍근
- 편집인: 박종호
- 부편집인: 박주현, 임현정, 양우현
- 자문위원: 서재형, 정명환, 강동영
- 전담기자: 광승국
- 논설위원: 이순미, 신영은, 박신남, 강필서, 이종순, 백재봉, 정영범, 김미영, 정관성
- 편집위원: 윤미순, 양창근, 최정미, 김영규, 이원규, 임태형, 정영진, 허만수, 설혜순, 오선화
- 등록번호: 광주광역시 라00144
- 간별: 월간
- 등록일자: 2010-01-25
- 편집및인쇄: 레이아웃 T. 070-8277-2589
- 광고신청: T. 062)521-0025

광고 및 구독신청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 후면 전면광고 : 1,000,000원
- 후면 외 전면광고 : 700,000원
- 하단광고 : 350,000원
- 하단1/2광고 : 200,000원
- 구독료 : 20,000원/1년
- 구독료입금계좌: 예금주: 광주건축사회, 계좌번호: 신한 131-009-471898

건축문화사랑 신문

T. 062)521-0025~6 F. 062)528-0026

건축문화사랑

신문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

- 발전기금: 1만 원부터
- 후원방식: 신한 131-009-471898 (예금주: 광주건축사회)
- 이본석 이본석 법률사무소 100,000원

건축문화사랑 원고모집

건축문화사랑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독자사진/지역소식/동호회소식/책/수상/수필/작품노트/건축작품/독자만평/기타(기행문, 시, 문학작품, 미담, 학위취득, 교수임용 등)

원고마감: 매달 25일

문의: 광주건축사회(T. 062-521-0025 / gjkira@empal.com)

1. 건축작품 및 기타를 제외한 모든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2. 원고에는 작가의 사진과 사무소명, 직책 및 약력을 첨부
3. 원고는 아래 한글, 명조체, 10pt로 작성, 사진은 디지털파일로 제출

자연의 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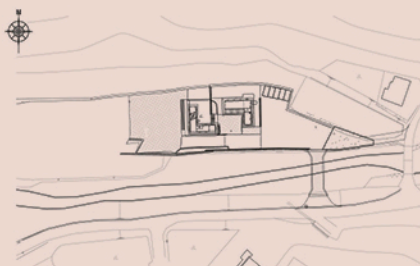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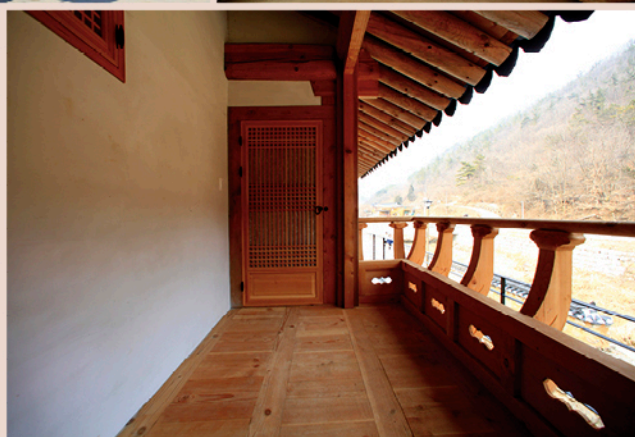
윤미순 건축사 / 미 건축사사무소
전북 익산시 인북로32길 18-4
Tel. 063-857-0057



대지위치 :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457 외 1번지 / 대지면적 : 3,111.00㎡ / 건축면적 : 261.92㎡ / 연면적 : 322.22㎡
규모 : 1동-지상 1층, 2동-지상 2층 / 주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목구조 / 주요마감 : 목구조, 노출콘크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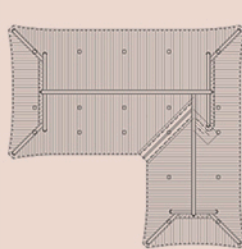
산과 강, 바람, 햇빛에 순응하며 자연 속에서 소통하고자 가장 한국다운 집, 한옥과 지형을 이용한 현대 건축물을 자연의 품에서 함께 하고자 한다.
한옥 그 자체만으로도 단아한 멋, 고즈넉한 분위기, 맘이 편해지는 포근함, 틈마루에 걸터앉아 자연을 함께 느껴 보고자 한다.
한옥의 창으로 그리는 풍경/ 마당의 풍경/ 장독대의 풍경
이것들이 자연을 즐기는 놀이이지 않을까?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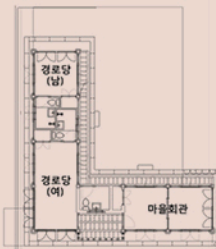
1동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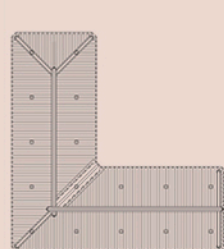
1동 지붕 평면도



2동 1층 평면도



2동 2층 평면도



2동 지붕 평면도

같지만 다른카드 마이더스아키디자인

협회원대상 다년계약 프로모션

(스탠다드/프리미엄버전)

스탠다드/프리미엄 버전 다년계약 파격할인

3년 라이선스

STANDARD

420만원(1 Lic.) >> 100만원 (VAT 별도)

PREMIUM

480만원(1 Lic.) >> 150만원 (VAT 별도)

5년 라이선스

STANDARD

300만원(1 Lic.) >> 150만원 (VAT 별도)

PREMIUM

300만원(1 Lic.) >> 220만원 (VAT 별도)

+ 프리미엄 구매시 혜택

업데이트	인증	기능		
무제한	네트워크 버전 (카드 설치 무제한)	DWG 전 버전 완벽 호환	서드파티&리듬 (창호, 계단, 단열재 등)	교재/매뉴얼 무상제공

구매문의 1899 - 9260 www.midasCAD.com

카드 최대 6개월 무이자 가능

MIDAS ARCHI DESIGN



전북건축사회, '중국 강소성-제7회 자금상 건축 및 환경설계 공모전' 공고
참가 희망하는 건축사 회원 및 관계자(대학생, 일반인) 9월 7일까지 출품신청서 제출



전북건축사회(회장 이길환)는 지난달 20일, 국제교류사업 파트너 기관인 중국 강소성 감찰설계 협업협회가 주최하고 있는 '제7회 자금상 건축 및 환경 디자인 공모전'을 공고했다.

'자금상 건축 및 환경 디자인 공모전'은 중국 내에서 2014년부터 6차례 개최된 영향력이 있는 건축 디자인 콘테스트로, 디자이너, 학생 그리고 일반 대중을 위한 전문성과 사회성이 충분히 융합된 플랫폼을 구축하고, 창의적인 구상과 디자인으로 도시와 농촌의 공간 품질을 제고함으로써 건축 문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건강한 보금자리'라는 주제의 오픈 출제 방식으로 참가자들은 현실의 도시와 농촌 공간을 창작 소재로 선택하여 자체적으로 장소를 선정하고 디자인 미션 및 부제 또한 자체적으로 설정하여 진행하면 된다.

본 공모전은 직업조와 학생조로 구분된다. 직업조는 관련 전공의 건축사 및 디자이너, 교사 및 기타 업계 종사자로, 학생조는 관련 전공의 전일제 재학생(전문대 및 일반 대학생, 석사 및 박사과정 포함) 학생으로 구분된다.

참가 신청은 인터넷 참가 신청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데 참가자는 '자금상 건축 및 환경 디자인 공모전' 공식 사이트(www.iarchis.com), 워웹 공중계정(iarchis; 건축창의공간/建築創意空間) 또는 '자금상 문화 창의 디자인 공모전' 공식 사이트(www.zgwcsj.com)에서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 및 참가 신청 방법(9월 7일까지)은 전북건축사회 홈페이지(http://jbkira.kira.or.kr/) 알림광장, 공문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주시, 저소득층 주민 주거불편 해결하는 해피하우스 사업 홍보 나서
7월 22일 금암노인복지관에서 생활보호사 대상 전주시 해피하우스 사업 홍보 펼쳐



전주시 해피하우스가 취약계층을 돕고 있는 복지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주민들의 주거불편을 해결하는 사업 홍보에 나섰다.

전주시는 지난 7월 22일 금암노인복지관에서 생활보호사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상지원 유지보수 서비스 등 전주시 해피하우스 사업에 대한 홍보활동을 벌였다. 무상지원 유지보수 서비스는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에 거주하는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 수전기구 수리, 방충망 교체 등 28개 품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날 복지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해피하우스 사업의 대상자 및 서비스 범위, 신청방법 등을 안내했다. 또 무료건축설계 상담서비스, 리폼교육, 공구 무료 대여 서비스 등도 소개했다.

앞서 시는 6월 26일 유아2동 소재 즐거운 노인복지센터에서 생활보호사 23명을 대상으로 해피하우스 홍보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향후 시는 습도가 높은 최근 상황에 대비해 위생안전을 높일 수 있도록 살균소독, 행주 교체 등을 지원하고 창틀 누수, 전기 누전 등 생활안전 서비스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전주시 해피하우스는 올 상반기에 1,671세대, 6,869건의 주택 보수 점검 서비스를 지원했다.

한편 해피하우스 사업에 대해 안내받길 원하는 단체는 전주시 홈페이지(jeonju.go.kr)에서 권역별 해피하우스 센터를 확인한 뒤 해피하우스 노송센터(1577-6513), 인후센터(1577-2589), 완산센터(1577-6514), 팔복센터(063-211-7741)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전주시, 노후화된 인후·반촌 주민쉼터 쾌적하게 탈바꿈
주민, 청년예술가들과 인후·반촌 지역 휴게공간 개선사업 실시

주거환경이 열악한 전주시 인후·반촌 지역의 낡고 오래된 주민쉼터가 주민들의 손으로 쾌적하고 안전하게 탈바꿈됐다.

전주시와 전주시재생지원센터는 지난 7월 16일 전주형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주민과 청년예술가들이 힘을 모아 '인후·반촌 지역 휴게공간 개선사



업을 실시했다. 인후·반촌 지역은 2012년 재개발 정비사업 예정지구에서 해제된 이후 기반시설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저층 노후주거지가 밀집한 곳이다.

이번 사업은 노후화된 쉼터를 주민들의 만남의 장소로 쾌적하게 개선하고 향후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들의 역량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센터는 낡고 오래된 평상을 쾌적하고 안전한 벤치로 교체하고 태양광 시설을 설치했다. 또 주민과 청년예술가들은 벤치 뒤편에 나무 등 자연을 담은 벽화를 그려 화사하게 탈바꿈시켰다.

전북대 한옥기술인력양성사업단, 고창군에 전통정자 '근민정' 기증
지난 7월 29일 고창군청 광장에서 현판식 가져...



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 한옥건축기술인력양성사업단(단장 남해경)은 고창군청 옆에 멋들어진 전통건축양식의 정자 '근민정'을 만들어 고창군에 기증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9일 고창군청 광장에서 '전북대 고창캠퍼스 한옥 건축기술인력 양성사업단'이 기증한 전통건축 양식의 정자 '근민정' 현판식이 열렸다.

군민 공모를 통해 이름 붙여진 '근민정'은 '가장 쉽고 간편한 행정으로 군민 속으로 들어가서 군민과 함께 울력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예부터 고창은 '행정은 모름지기 간편하고 쉬워야 한다'는 정치철학으로 모양성 안 옛 고창현 동헌의 현판도 평근당이였다.

'근민정' 현판은 야천 하관수 선생의 글씨와 풍가 김병옥 전 상하면장의 서각으로 완성됐다. 특히 안상섭 교수면민회장이 나무 구입에 애썼고, 김원봉 전 평통 고창군협회 회장, 전순종 덕산이장 등 수많은 군민들의 정성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전라북도, 2020 제21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공모

- ▶ 공모대상
 - 가. 일반 부문(사용승인)
 - 전라북도 내에 건축된 건축물 중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포함)된 건축물
 - 전라북도 외 지역의 건축물로서 전라북도 소재 건축사사무소 작품
[공공/일반(주거·비주거·한옥) 분야로 구분]
 - 나. 학생 부문
 - 1) 건축계획
 - 자유로운 주제로 도내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건축계획 작품
 - 전라북도 소재 대학교(캠퍼스 포함) 재학생(휴학생 포함)의 건축계획 작품
 - 2) 기술계획
 - 자유로운 주제의 건축기술계획 작품
 - 다. 건축사진 부문
 - 전라북도 내 건축물을 소재로 한 건축사진 작품
- ▶ 접수기간 : 2020. 10. 6.(화) ~ 10. 7.(수) 09:00 ~ 18:00
- ▶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 전라북도건축사회 홈페이지 알림광장, 전북건축문화제 참고
- ▶ 문의
 - 전라북도 주택건축과 T. 063-280-4386 F. 063-280-2359
 - (사)전라북도 건축문화진흥 연합회 T. 063-251-6040 F. 063-251-6048

전북 회원동정

- 전입
 - 채가을 건축사 / 가을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4길 46
 - 강경남 건축사 / 재다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4길 21
- 전출
 - 오요안 건축사 / (주)삼호종합 건축사사무소 / 서울시건축사회 전출
- 부고
 - 송미영 건축사 / 디에스 건축사사무소 / 모친상 - 07월 12일(일)
 - 이균수 건축사 / (주)맥 건축사사무소 / 모친상 - 07월 22일(수)
 - 신대섭 건축사 / 신대섭 건축사사무소 / 부친상 - 08월 05일(수)



대지위치 : 전라남도 진도군 군내면 명랑대침로 37 / 대지면적 : 3,527㎡ / 건축면적 : 263.29㎡ / 연면적 : 525.17㎡ / 건폐율 : 7.46% / 용적률 : 14.89% / 규모 : 지상 3층
주용도 : 근린생활시설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주요 마감 : 외부-스타코, 내부-치장벽돌, 페인트, 벽지



꿈의 세계

이원규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이음건축
광주 서구 화정로 268, 3층 / Tel. 062-363-3370



광주광역시, 공공건축 설계공모 참여 기회 대폭 확대

광주건축사회 주도적 역할, 공공건축 설계공모 선진화 방안 8월 4일부터 전면 시행

광주광역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와 관련, 응모자 비용 부담 가중 및 심사위원회 비공개 운영 등으로 참여업체가 적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설계공모 선진화 방안을 마련, 8월 4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진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설계공모 대상 확대 ▲제출도서 간소화로 비용 부담 대폭 경감 ▲심사위원회 구성 개선 ▲심사 결과 전면 공개 및 전문위원회 구성 등이다.

먼저 설계비 1억 원 이상 설계공모 의무 적용 대상 사업을 건축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5,000만 원 이상 사업까지 확대도록 관리해 지역 업체 참여 기회를 높이고 창의적인 건축기획을 유도한다. 또한 기존 참여업체의 비용 부담으로 작용하는 조감도 등을 제출받지 않고, 사업 규모별 적정 심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출도서를 기존 50매에서 최소 7매로 대폭 간소화해 참여업체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심사위원은 인력 풀(Pool)제를 운영하되, 2년 내 3회로 심사 참여 횟수 제한 및 타 지역 심사위원 40% 이상 구성과 함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익명 신고 활성화를 통해 설계공모 심사의 공정성을 더욱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투명한 심사를 위해 심사 전 과정을 녹화 또는 녹음하고, 심사 결과는 심사위원 실명과 함께 채점표, 사유서 등을 전면 공개하며, 필요 시 라이브방송 플랫폼(유튜브)을 활용해 실시간 공개된다.

건축물의 창의성과 기술력 위주의 평가를 위해 사업규모 및 특성에 따라 발주부서에서 구조, 시공 등 기술 분야 전문위원회를 별도 운영함과 동시에 건축설계 분야 전문 심사위원을 추가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 외에도 설계 이후 시공과 준공, 사후관리까지 공공건축물 조성 전 과정에 설

계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설계의도 구현제도를 시행해 건축물 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시는 설계공모 선진화 방안이 반영된 운영기준(안)이 마련되기까지 건축사협회 등 관련 단체·학회, 총괄·공공건축가 및 관계 부서와 수차례에 걸친 협의·조정을 통해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특히, 광주건축사회는 설계공모 제도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설계공모 개선 건의(안)를 수립하고 의견수렴 과정과 관련 단체장 및 관계 부서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함으로써 운영기준(안)을 마련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시는 이번 설계공모 선진화 방안을 통해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 제도가 활성화돼 창의적인 공공건축물을 건립해 품격 있는 도시공간 조성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24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9월 25일까지 우수 건축작품 공모접수

최근 5년 이내(공고일 기준) 관내에서 사용승인된 주거, 비주거 건축물 대상



광주건축사회(회장 강현구)가 주관하고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회장 남승진)가 주최하며, 광주광역시(시장 이용섭)가 후원하는 2020년 제24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공모가 시작됐다.

해당 공모사업을 주관한 광주광역시건축사회는 8월 10일 공고를 통해 올해 관내 우수한 건축사와 건축물을 선정해 시상하는 광주시 건축상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광주건축사회,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업무대가 산정프로그램 구축 이용 안내

분리감리건축물에 대한 설계의도구현 업무대가를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음에도 대부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에 따라 광주건축사회에서는 설계의도 구현비를 자동 계산하여 청구서를 출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다음과 같이 이용 안내하오니 건축사 회원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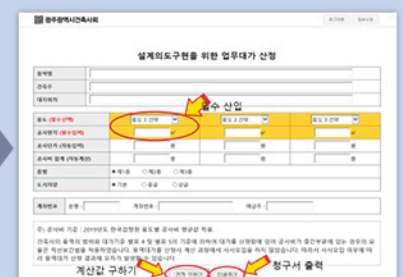
광주건축사회 홈페이지 (<http://gkira.kira.or.kr/>) 접속 후 설계의도구현을 위한 대가산정 배너 클릭



설계의도 구현 업무대가 산정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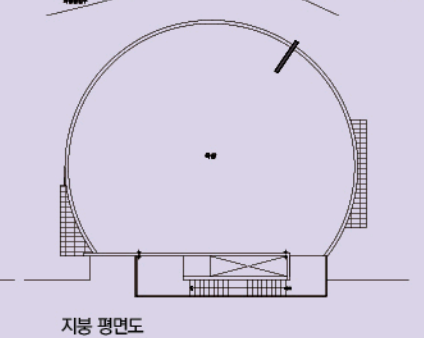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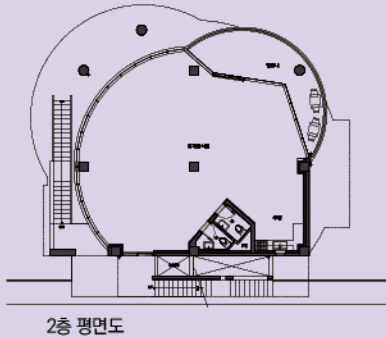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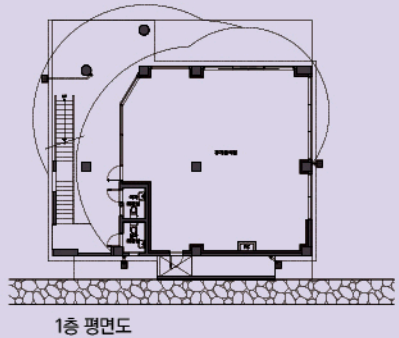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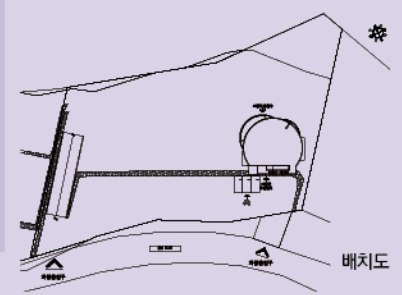
*1.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의해 산정된 설계대가의 8% 클릭 ※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은 (산정방식을 참조하여 수기계산)



① 클릭 후 계산을 위한 "용도" 및 "공사면적" 산입 후 건축구하기 클릭
② 용역명·건축주·대지위치·계좌번호 산입 후 인쇄하기 클릭
③ 청구서 출력



진도대교가 보이는 바다에 바로 면한 부지이다. 모든 실에서 이 경관을 바라볼 수 있길 건축주는 원했고, 이를 위해 원형 파사드를 제안했다. 대신 일자로 쪽 올라가는 단순한 디자인이 아닌, 물결이 서로 겹치듯 각 실의 크기와 기능에 맞게 여러 개의 원을 중첩시켰다. 1~2층의 카페는 원 형태를 따라 창을 최대한 크게 돌렸고, 3층 펜션은 원형에 사각 매스를 삽입하였고, 발코니는 크게 키워 야외공간을 설치했다. 입면은 조형미를 살리기 위해 깨끗한 백색 스타코로 마감하였다.



응모대상은 건축사 업무등록을 한 자의 작품으로 최근 5년 이내(공고일 8월 10일 기준) 관내에서 사용승인된 주거, 비주거 건축물에 한한다. 작품 접수는 광주광역시건축사회 홈페이지(<http://gjkira.kira.or.kr/>) 공지사항에서 응모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작품과 함께 오는 9월 7일부터 25일까지 건축사회 사무국(광주 북구 무등로 255 4층)에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작품 접수 마감 후에는 건축사, 대학교수, 건축직 공무원 등 건축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2주간 현장심사를 실시하고, 주거 부문과 비주거 부문 각각 금상 1작, 은상 1작, 동상 1작 등 총 6작품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서 입상한 건축사에게는 상패와 상금이 수여되고 시공자에게는 상패가, 건축주에는 동판이 전달될 예정이다.

입상 작품은 오는 10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4일 동안 광주광역시청 1층 시민홀에서 열리는 '제17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에서 시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광주건축사회 강현구 회장은 "올해로 제24회를 맞이하는 광주광역시 건축상은 광주를 대표하는 건축물을 선정하는 공모전인 만큼 올해 역시 우수한 건축 작품들이 대거 발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광역시 건축상'은 지난 1989년부터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을 장려하기 위해 설계건축사, 시공자, 건축물에 시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129개 건축물에 대해 시상을 실시해 광주시 건축문화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광주건축사회 주관, 2020년 제17회 건축·도시사진공모전 진행

총상금 400만 원, 광주·전남 내 우수 건축물 대상... 10월 8일까지 접수



광주건축사회는 2020년 제17회 광주건축·도시사진공모전을 진행한다. 제17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일반 시민이 건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2004년부터 매년 개최됐다.

공모주제는 광주광역시·전라남도 지역 내 우수 건축물(건축물/공간)이며, 건축과 사진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출품 가능하다.

10월 8일까지 1인 2작품 내에 12"×17" 사이즈의 필름 원판 또는 2MB 이상 JPG 원본파일과 참가신청서를 광주건축사회(광주 북구 무등로 255 광주건축사회관 4층)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총상금 400만 원으로 대상 1점 100만 원과 최우수상 2점 각 50만 원, 우수상 4점 각 25만 원, 장려상 8점 각 10만 원이 수여되며, 입상작은 오는 10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광주광역시청 1층 시민홀에서 진행되는 제17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에 전시된다.

신청서식 및 자세한 사항은 광주건축사회 홈페이지(<http://gjkira.kira.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주건축사회 주관, 제17회 광주건축·도시그림그리기대회 개최

광주 소재 유치원생·초등학교 저·고학년 대상... 오는 9월 25일까지 작품 접수



광주건축사회는 제17회 광주건축·도시그림그리기대회 작품접수를 오는 9월 25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광주지역 소재 유치원생·초등학생(저학년 1~3학년/고학년 4~6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나도 건축사(여러분은 미래의 건축사, 아름다운 세상을 꾸며주세요.)'를 주제로 작품을 접수 받는다.

참가비는 무료이고 응모는 1인당 1작품에 한하며, 별도의 도화지 배부는 없다.

초등학교 고학년은 쉐트지 4절지(크기 39.4cm×54.5cm), 초등학교 저학년과 유치원생은 8절지(크기 39.4cm×27.2cm)에 참가신청서를 첨부하여 기한 내 방문 제출 및 우편 제출로 접수하면 된다.

이번 대회 수상자에게는 총상금 400여만 원이 수여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건축사회 홈페이지(<http://gjkira.kira.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0 아름다운 문화도시 공간상' 공모



- 공모구분 : 광주시 관내 건축물 공개공지, 담장가로 및 쌈지공원 벽면 및 옥상녹화, APT 등
- 접수기간 : 2020년 8월 1일부터 31일까지
- 접수방법 : A3 규격에 설명서 및 장소 내용과 사진을 포함하여 5매 이내 제출
- 접수처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6번길 12(치평동), 골든빌 310호 나무심는 건축인
- 문의 : 나무심는 건축인(TEL. 062-383-0925)

광주 회원동정

- **입회**
 - 신근아 건축사 / 정연 건축사사무소 /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17-29 애플지식센터 레드비동 제2호
 - 김춘광 건축사 / (주)디자인현대 건축사사무소 / 광주북구 무등로 182-1
- **변경(소재지)**
 - 노기영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신아 / 광주 광산구 수완로12번길 7 3층
- **부고**
 - 정정상 건축사 / 정상 건축사사무소 / 모친상 - 07월 11일(토)
 - 김한호 건축사 / 프랜 건축사사무소 / 빙부상 - 07월 22일(수)

전남건축사회, 회원사 직무능력향상교육 실시를 위한 실무회의 개최

지난 7월 24일 한국폴리텍대학에서... 학교 관계자와 교육과목 선정 등 협의



전남건축사회(회장 조연준)는 지난 7월 24일 한국폴리텍대학 2층 기업지원실에서 조연준 회장과 조익선 순천지역회장, 박종경 광양지역회장, 김용균 여수지역회장, 한국폴리텍 순천캠퍼스 임종대 학장과 산학협력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회원 및 회원사 재직근로자 대상

직무능력향상교육 실시를 위한 실무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실무회의에서 회원(유료) 및 회원사 재직근로자(국비) 대상 직무능력향상교육 실시를 위한 사전 수요조사 계획과 BIM, 건축캐드, 3D프린팅, 드론, 기계캐드 등 교육과목 선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전남건축사회 관계자는 추후 교육과정이 수립되면 지역건축사회별로 교육 참여 수요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수시,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로 '건물의 가치를 올리세요'

건축주가 직접 디자인, 이색적이고 창의적인 번호판 설치



여수시가 기존의 표준형 건물번호판에서 벗어나 건물과 어울리는 특색 있는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를 홍보하고 나섰다.

자율형 건물번호판은 건축주가 건물에 어울리는 모양, 색깔, 재질 등을 자유롭게 선택해 제작함으로써 주변 건물과 차별성을 가질 수 있어 단순한 주소 표기를 넘어

건물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설치 방법은 신청서에 제작 설치 계획서를 첨부해 시청 민원지적과 도로명주소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작 가능 통지를 받으면 30일 내에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설치하고 사진을 첨부해 완료를 제출하면 된다.

단, 건축물 허가·신고를 할 때 건축설계도서에 건물번호판 등의 크기, 모양, 재질, 부착 위치 등을 반영하면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신청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건물을 설계할 때부터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반영하면 편리하다"며, "많은 시민들께서 기능성과 아름다움을 담은 개성 있는 자율형 건물번호판 사용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현재 여수시에는 고소동 천사마을 등 117개소에 자율형 건물번호판이 설치돼 있다.

여수시, '문수지구 도시재생 뉴딜'... 7월부터 본격 추진 나서

외부 경관 집수리 지원사업 450여 세대 신청, 소방도로 개설 교통체증 해소



여수시가 문수지구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외부 경관 집수리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7월부터 본격 추진에 나섰다 밝혔다.

문수지구는 1986년 IBRD 차관으로 조성된 노후주택단지다. 시는 2018년 공모 선정 이후 국토교통부의 실현타당성 평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9년 12월

30일 활성화 계획을 고시했다. 6월까지 집수리 수요조사 및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해 왔다.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집수리 사업은 1,000만 원 한도에서 자부담 1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현재까지 약 450여 세대가 신청했다. 주택 경관 개선을 목적으로 2022년까지 옥상방수, 외벽, 창호, 대문, 담장 보수를 추진한다.

시는 이에 앞서 뉴딜사업과 연계해 224억 원을 들여 올해 안에 소방도로 개설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건물 철거를 완료하고, 상수도 및 도시가스관로 매설을 추진 중에 있다.

도로 공사가 완료되면 2차로의 차도와 노면 주차장 312면을 확보해 주택단지 내 교통 체증과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수시는 편입 토지 보상이 완료된 토지에 대해 올해 안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어울림센터, 청년창업시설, 게스트하우스, 주차장, 텃밭 등 하드웨어 사업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대학 등 소프트웨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광양시, 국토부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공모에 선정

창업지원주택 150호와 600㎡ 규모의 창업지원시설 건립



광양시는 지난 7월 22일 국토교통부 '2020년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공모사업' 3가지 유형(창업지원주택,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중기근로자전용주택) 중 선정된 창업지원주택은 창

업지원주택 청년창업인과 창업기업종사자들의 안정적인 주거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된 전국 17개소 중 유일하게 설계, 건설, 운영까지 직접 시행할 계획이다.

주거와 사무가 복합된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평면으로 설계되며, 단지 내 카페형



A동 대지위치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932-10 / 대지면적 : 290.80㎡ / 건축면적 : 108.57㎡
연면적 : 199.11㎡ / 주용도 : 단독주택 / 규모 : 지상 2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B동 대지위치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932-13 / 대지면적 : 290.90㎡ / 건축면적 : 83.16㎡
연면적 : 138.15㎡ / 주용도 : 단독주택 / 규모 : 지상 2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이웃사촌

김한얼 건축사
(주)한얼 종합건축사사무소
전남 광양시 광양읍 서평10길 18-1, 2층
Tel. 061-763-8701

세미나실, 아이디어룸, 미디어룸 등을 설치해 각종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연계 운영하게 된다.

건설 예정지는 광양 성황도이 도시개발사업지구 일원이며, 창업지원주택 150호와 600㎡ 규모의 창업지원시설로 국비 52억 원, 기금융자 69억 원 등 건설비를 지원받아 추진될 예정이다.

입주대상자는 청년창업인, 창업기업중사자뿐만 아니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일반 청년층도 거주 가능하다.

광양 성황도이지구는 인근에 포스코국가산단, 여수국가산단 등 다수의 산단과 창업기업 50여 개가 입지하고 있어 일자리가 많으며, 전남창조혁신센터 창업패키지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 입주수요가 충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주시 옛 영산포역, 철도공원 이어 '문화체험관' 들어선다

1969년 신축 당시 모습 그대로... 문화·체험·전시 복합 건축물 조성



191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호남 지역 교통과 물류의 중심지로 영화를 누렸던 옛 영산포역이 문화·체험·전시 공간을 갖춘 복합센터로 새 단장한다.

나주시는 호남선 복선화 공사로 폐역이 된 영강동 소재 옛 영산포역사(부지 741㎡)를 '영산포역사 문화체험관'으로 조성

할 계획이라고 지난 7월 15일 밝혔다.

체험관은 연면적 978.75㎡, 3층 규모로 총사업비 29억 원(도·시비 각 50%)을 투입해 올해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1월 착공할 예정이다.

1969년 신축 당시 모습의 영산포역 복원을 골자로 역사·기차 체험관, 종합전시관, 행사관, 문화센터, 전망시설 등이 들어선다.

체험관은 옛 영산포역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추억의 공간이자 기 조성된 철도공원, 인근 관광자원과 더불어 영산포권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산포역은 1913년 보통역으로 영업 개시 후 한국전쟁 중 소실됐다가 1969년 신축돼 호남지역 교통, 물류의 중심지로 명성을 날렸다.

2001년 7월 호남선 복선 전철화 공사 완료에 따른 선로 이설로 나주역과 통합돼 폐역으로 남겨졌다가 이후 2004년과 2019년 2차례에 걸친 관광자원화 사업을 통해 현재의 영산포 철도공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나주시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분야 균등사업 선정에 힘입어 사업비 16억 원(균특 10억, 시비 6억)을 투입해 공원 내 관광시설 설치를 완료했다.

폐철길을 활용한 600m 구간 레일바이크(3대)와 상징게이트, 야외공연장, 포토존, 초화원 등이 조성돼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다.

레일바이크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하에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 10시~17시까지 운영한다.

전라남도건축사회 실무교육 일정 안내

교육 종류 및 인정 시간 : 전문교육 4시간, 윤리교육 2시간

일자	구분	교육과정명	시간	강사명	교육장소
8월 26일 (수)	윤리교육	현대인의 윤리 의식과 문학적인 감수성	12:30 ~13:30	한승원 작가	전남여성가족재단 1층 공연장 061-260-7300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30
	전문교육	구조계획·설계 시 유의사항 및 구조안전확인서 내용이해	14:00 ~15:30	이강근 겸임교수 (건축사)	
	전문교육	지역건축자산 활용을 위한 도시재생 사례	16:00 ~17:30	정종민 겸임교수 (건축사)	
8월 28일 (금)	윤리교육	인간의 도덕: 윤리학과 인지과학	12:30 ~13:30	서명원 교수	전남테크노파크 지식산업센터 1층 대강당 061-729-2500 순천시 해룡면 울촌산단4로 13
	전문교육	지역건축자산 활용을 위한 도시재생 사례	14:00~15:30	정종민 겸임교수 (건축사)	
	전문교육	구조계획·설계 시 유의사항 및 구조안전확인서 내용이해	16:00 ~17:30	이강근 겸임교수 (건축사)	

순천시, '2020년 아름다운 건축상' 작품 공모

- 응모대상 : 2016년 이후부터 작품 접수일까지 사용승인 된 순천시 소재 건축물
- 응모구분 : 주거와 비주거 / 우수작 1개소, 가작 2개소 선정
- 접수기간 : 2020년 10월 14일부터 10일간
- 접수방법 : 응모를 희망하는 설계자와 건축주는 순천시 건축과에 응모신청서와 작품설명서, 심사용 패널 등 응모서류를 제출
- 문 의 : 순천시 건축과(061-749-6379)

전남 회원동정

- **전입**
- 김원석 건축사 / 이슬 건축사사무소 /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1, 602호
- **변경(소재지)**
- 문진환 건축사 / (유)금강 건축사사무소 / 전남 순천시 운동1길 30-5
- 양경승 건축사/ 해룡 건축사사무소 / 전남 순천시 운동1길 30-5, 202호
- **변경(형태 및 주소)**
- 차영식 건축사/ (주)한솔 건축사사무소 / 전남 화순군 화순읍 진직로 126, 5층



지난여름 사무실을 방문한 2명의 건축주는 인접한 2개의 필지에 단독주택을 짓고 이웃사촌으로 살고자 설계의뢰를 하였다.

가족과 부모님이 함께 할 공간으로 1층은 3대가 함께하는 공간과 몸이 불편하신 어머니를 케어할 수 있는 공간, 2층은 가족과 지인들의 친목 공간으로 현관에서 2층으로 진입하는 계단을 배치하여 동선을 최소화하였다.

다른 주택은 부부와 아이들의 공간으로 아이방과 놀이방을 배치하였으며 추후 방 분리도 고려하였으며 거실과 주방을 일자 배치하여 아이들 관찰을 용이하게 하였다.

두 집이 서로 마주 보듯 설계하고 시선은 교차하지 않도록 하여 최대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였고 서로의 마당을 공유하게끔 유도하였으나 준공 무렵 두 집 어른들의 만류로 담장이 설치되었다.

의리로 함께 이웃하게 된 두 젊은 건축주들이 오랫동안 정을 쌓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A동 1층 평면도



A동 2층 평면도



B동 1층 평면도



B동 2층 평면도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무등야구장) 설계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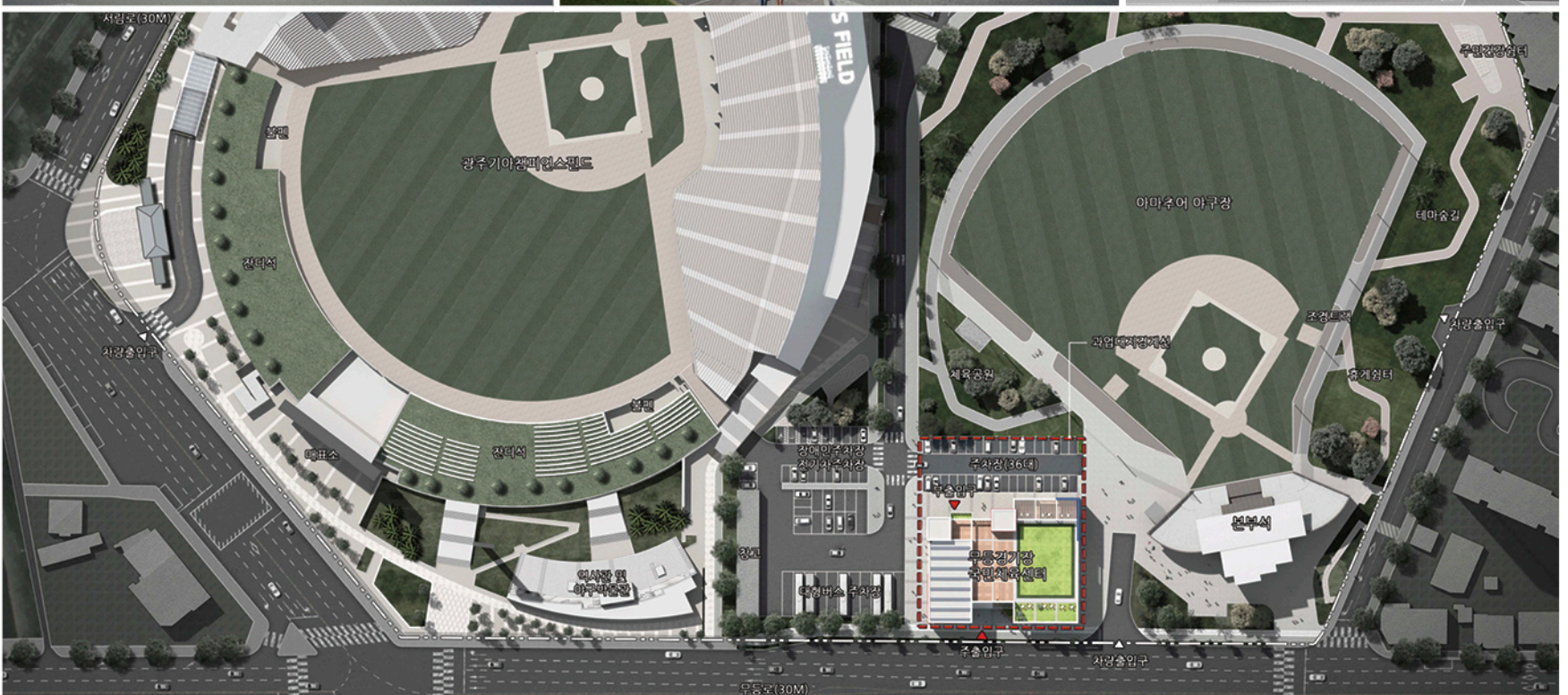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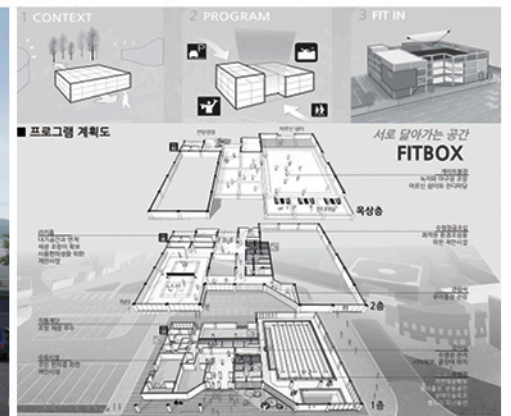
본 사업의 목적은 정부의 2030 스포츠 비전 10대 핵심과제의 실현과 함께 사람들이 즐겨 찾는 여가 공간 조성으로 시민들의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등 지역공동체를 담아내는 데 있어서 우수한 안을 선정하기 위하여 공모를 진행함.

심사위원 : 오세규(전남대), 김홍일(동국대), 임정휘(세종이엔지), 김순철(동신대), 정만영(공간미학), 김종필(필건축)

당선작 : 진짜노리 건축사사무소
 우수작 : 강천 건축사사무소
 * 자료 미제출

-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 316번지(무등야구장 내)
- 연면적 : 2,029.59㎡
- 대지면적 : 88,626.00㎡
- 구 조 : 철근콘크리트
- 건축면적 : 1,372.64㎡
- 공사비 : 6,479,180천원 (VAT 포함)

당선작
 이충미 건축사 / 진짜노리 건축사사무소



특별기고

광주천을 활용한 도심 열섬화 현상 완화 및 도시기후조정 그리고 관광벨트 구축 제언

2005년 복원된 서울 청계천은 매년 연평균 1,800만 명의 내·외국인이 방문하는 서울의 명소이자 녹지공간으로써 서울시민들의 안락한 쉼터로 자리 잡았으며, 빛축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진행하는 복합공간으로도 사용되고 있고, 고·근·현대건축물들을 비롯해 다양한 문화유적지 등 여러 관광지들과 연결되어 서울의 새로운 먹거리를 만드는 데 밑바탕이 됐다.

우리 광주시는 청계천보다 더 친환경적이고, 경제성, 문화성을 갖춘 좋은 재료가 있다. 지난 2019년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광주천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작년 상반기부터 오는 2021년까지 총 370억 원이 투입되어 진행되고 있는 '광주천 환경정비 사업'은 광주에 살고 있는 미래 세대가 향후 몇십 년간 마음껏 숨 쉬고 놀며, 즐기는 새로운 공간 형성 및 활용 방식 설정의 중요한 기점이라 볼 수 있다.

7월 1일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지정이 해제되는 공원일몰제 시행으로 그동안 우리 광주시의 허파 역할을 해온 도시공원의 수많은 나무들이 사라져 갈 우려 속에서 광주천 주변에 나무를 심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나무는 도시의 열을 내리는 효과가 있다. 나무의 몸통 위에 나뭇가지나 잎이 무성한 부분인 수관부는 상당량의 열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데, 치밀한 단풍나무의 수관부는 맑은 한여름에 단파장의 열에너지를 약 80%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한다.

또 공기의 정화를 돕고 바람의 조절과 함께 대기오염과 도시인의 건강을 지켜주는 지표로써 소규모의 기후조정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러한 기능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 수림대(삼림을 기후 조건의 변화에 따라 띠 모양으로 배열한 것)를 조성하는 것은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

더불어 광주천과 연계한 관광벨트 구축도 고려해 볼만 하다. 국립공원인 무등산 입구를 시작으로 광주천 물길을 따라 4가지 방향의 관광벨트를 구축할 수 있는데, 대략적으로 '5·18 유적지와 양림동의 근대건축물 탐방구역', '복합문화시설 이용구역', '광주폴리구역', '광주시청 중심의 시민문화시설 이용구역'으로 세분하여 제안할 수 있겠다.

'5·18 유적지와 양림동의 근대건축물 탐방구역'으로 동구 불로동 천변에 위치한 옛 적십자병원과 5·18 민주광장 주변의 전일빌딩, 옛 전남도청, 상무관 그리고 양림동 선교유적인 오웬기념각, 우일선사택, 원스보로우홀, 커티스 메모리얼홀과 시 지정 민속자료인 고택 이장우 가옥, 최승효 가옥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복합문화시설 이용구역'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양림동역사마을, 전통문화를 엿볼 수 있는 광주향교, 공공예술프로젝트가 있는 사직공원 및 전망대, 양동시장과 챔피언스필드 야구 경기장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또 '광주폴리구역'을 지정하여 광주천과 연결할 수 있는데 문화전당 주변으로 옛 광주읍성터를 따라 설치된 제1차 광주폴리의 11개 작품과 광주천, 경양방죽, 광주공원, 금남로 등 도시의 점과 축을 연결하며 새로운 공공공간을 형성하고 있는 제2차 광주폴리 8개 작품, 문화전당 옆 광주영상복합문화관 옥상과 구도심인 산수동 도로 및 소공원에 설치되어 광주의 맛과 멋을 통해 도시의 일상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 제3차 광주폴리 11개 작품 등 세계적인 건축가들의 작품을 한 번에 둘러볼 수 있다.

그리고 '광주시청 중심의 시민문화시설 이용구역'으로 시청 옆 5·18 기념공원과 상무조각공원,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 상무소각장 부지에 들어서는 시립도서관 등을 연결할 수 있다. 특히 국제설계공모로 진행된 시립도서관 공모는 세르비아 건축가 브라니슬라프의 당선 작품으로 2022년 준공될 예정인데, 시청 주변 상무소각장인 혐오 시설을 교육, 문화시설로 탈바꿈시킨다는 취지에 들어맞는 우수한 건축물로 탄생되어 광주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불러오고 있다.

결론은 광주천을 중심으로 광주의 역사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관광벨트를 구축할 수 있고, 이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표방하는 광주의 새로운 먹거리로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를 위해 천변과 지상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통로 조성도 필요해 보인다. 현재 진출입을 위해 철계단 등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는데 시민들의 천변 이용성이 떨어지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도 필요해 보인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광주건축사회는 올해 광주천 공원화 및 관광벨트 구축을 위한 심포지엄을 계획하여, 시민들과 건축 도시 전문가들이 함께 방안을 고민하고 모색하는 자리를 갖고자 한다.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희망해 본다.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
회장 강현구

조선대학교 건축학과, 학과소식지 'ARCHI_VE' 5권째 발간 나서

2019년 3월 창간호 시작으로 매 학기 1권씩 발간... 구독 신청받아



자신의 이야기를 남기려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라고 생각한다. 잊히지 않기 위해, 잊지 않기 위해서 기록을 한다. 자신의 작품을 기록하고 전시하는 건축가의 마음도 이와 같은 것이라 생각한다.

글쓰기가 재학 중인 조선대학교 건축학과에서도 자신들의 이야기를, 학교의 이야기를, 누

군가의 작품을 기록하려는 학생들이 모였다. 여태까지 조선대학교 건축학과 이야기기가 기록된 것은 졸업전시회 책자뿐이었다. 졸업함과 동시에 작품이 사라지는 것이 아쉬워 학생들의 작품을 하나둘씩 기록하였고, 이것들이 모여 건축학과 소식지가 되었다.

지난 2019년 3월 창간호를 시작으로 벌써 4권의 책자가 발간되었다. 월간 공간(SPACE)처럼 매달마다 발간되지는 않지만 학기마다 한 권씩 만들어지고 있다.

건축(Architecture)의 이야기를 담고 기록한다(Archive)는 뜻에서 'ARCHI_VE'라는 이름을 지었다.

새 학기의 시작을 알리는 학과소식지에는 다양한 이야기가 들어있다. 신입생인 1학

년부터 졸업을 앞둔 5학년까지 학생들의 이야기를 기록하였다. 자신의 지난 학기 작품을 소개하기도 하고, 자신만의 취미, 여행기를 이야기하기도 한다. 또한, 졸업하신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담기도 한다. 거기에, 신입생들을 위한 포토샵 가이드, 건축모형 재료 가이드, 밤샘 작업의 묘미인 야식 맛집 소개 등의 다양한 환기 소재들도 있다.

학생들의 글을 다듬고 발행을 담당하시는 교수님들 덕분에 ARCHI_VE 5권도 만들어지고 있다. 오타도 많고, 편집도 엉성하다. 하지만, 학생들이 직접 작성한 글들은 저마다의 이야기가 서려 있다. 조선대학교 건축학과 이야기기를 듣고 싶은 이들은 조선대학교 건축학과 학과사무실(062-230-7795)로 연락하여 구독하기를 바란다.

이들 학생기자 / 조선대학교 건축학과(5년제)
deul6902@daum.net



이본석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본석

광주광역시 동구 자산로 82, 2층
T . 062-228-0787~8
F . 062-228-0789
M. 010-2736-0787
E . lbs0787@daum.net

-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 군법무관 15기 임용
- (현)광주건축사회 법률 자문변호사
- (현)광주광역시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 (현)전남지방경찰청 징계위원회 민간위원
- (현)부동산개발협회 광주지회 자문변호사
- (전)영무토건 자문변호사
- (전)광주광역시청 법률지원 자문위원

책 소개 _ 김다혜 학생기자 /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영화로 더 나은 세상을 꿈꾸다

변영주(영화감독) 저 / 창비 / 2018. 9. 17.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의지가 되는 책이 있다. 최근 많은 위로를 담은 책들과 고단함을 보듬어주는 책들이 발간되고 있지만 나에게서는 단순한 위로의 책보다 용기를 북돋아 주고 힘차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책이 더 의지가 된다. 바로 이 책처럼 말이다.



‘영화로 더 나은 세상을 꿈꾸다’는 <화차>의 감독, <방구석 1열>의 멋있는 패널리로 익숙한 변영주 감독의 강연을 옮긴 책이다.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단순히 영화 이야기에 그치지 않고, 영화계의 등급제와 심의에서부터 노동문제에 이르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하기 쉽게 다룬다.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얼 해야 할까?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란 ‘세계 평화’ 같은 거창한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다.

더 여유 있게 서로를 배려하는 세상, 나쁜 것을 함께 변화시켜가는 세상, 우리가 더 마음 편히 나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말한다. 흔히 이런 생각은 ‘누구나 하지만 쉽게 행동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에 쉽게 포기하곤 하지만 이 책의 저자는 정말 생각하는 대로 행동한다. 그리고 더 나은 방법을 제시하고 경험을 들려주기도 한다. 나와 비슷한 생각을 실천에 옮긴 사람의 경험을 보며,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용기가 생긴다.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우리의 자기연민을 다룬 글이었다. 작가는 더 좋은 세상에서 우리가 모두 존중받아야 하는 이유는, 내가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만큼 변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어준다. 내가 특별하다고 여기며 슬퍼하는 잠깐의 자기연민은 스스로를 보듬어 줄 수 있는 힘이 되지만, 그것이 거대해지는 순간 우리는 괴물이 되기 쉽다는 경고와 함께 말이다.

하지만 살다 보면 알면서도 자꾸 자기 연민에 빠져들 때가 있기 마련이다. 건강한 마음을 유지하기 힘들 때는 좋은 문장이 우리를 꼭 잡아줄 것이라는 이야기를 건넨다. 좋은 문장은 우리의 세상을 넓혀주고,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갈 여지를 줄 것이라는 용기를 건네는 것도 잊지 않는다.

이 책은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때로는 다정하고 때로는 날카로운 어조로 끊임없이 용기를 준다. 당장 행동할 수 있게 응원해주고 활력을 넣어주며 무엇이랄고 하고 싶게 도와주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에게 이 책은 앞으로 큰 위로와 용기가 되어 줄 것이다.

한 편의 시 _ 濟堂 추원호 / 건축사사무소 신세대그룹

푹린 수도물

하늘 구멍 뚫렸는지
연일 폭우가 쏟아진다
줄줄줄 쏟아지는 빗줄기
하나님은 울 엄니같이
잘 잊으시는가 보다
울 엄니 수도물 틀어 놓고
가끔씩 잠그지 못하고
그냥 두는 경우도 있었다

장마가 오십일 이상 내리니
하나님은 물 잠그는 것을
잠시 잊고 계시는가 보다
물 틀어놓고
잠시 주무시는 하나님
천사가 깨워주었으면 좋겠다
이참에 쏟아지는 폭우가
이곳 저곳 개끗이 쓸어
코로나19 택시타고
바다로 갔으면 좋겠다.



세상사는 느낌 _ 양민희 학생기자 / 전남대학교 건축디자인학과

과제전을 통한 학기의 마무리



전남대학교 건축디자인학과 학생들은 한 학기 동안의 안부를 한 학기의 마침표인 과제전을 통해서 인사를 나누었다. 특히나 대학교 첫 입학 이후 개강만을 기다린 올해 첫 신입생들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전염병 재해 때문에 처음 설계수업을 듣는 데 고난을 겪었다. 특히나 일학년들은 처음 설계수업을 듣는 데에 있어 선배 학년실에 찾아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같은 동기끼리 서로 경쟁하기도 하고 협력을 통해 서로의 도움이 필요한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제도수업을 잘 마무리 하였다. 일학년을 겨우 마치고 온 어리둥절한 2학년 학생 몇몇은 4~5학년 선배들을 따라서 학교에서 작업하기도 하였고, 3학년 그리고 졸업작품전을 앞둔 5학년과 5학년까지 한해도 남지 않은 4학년, 모든 학생들과 경험과 지식을 극한의 상황에서도 최대한으로 전달하고 소통하려 노력했던 교수님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받은 과제전이였다. 4학년 5학년들은 처음 대지분석이나 대지조사, 주제발표에는 사이버 강의로도 가능했지만 점차 컨셉을 적용 시키거나 맵프로세스 과정부터 사이버 강의로는 할 수 없는 한계점을 비쳤다. 그래서 몇몇의 학생들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올라와 교수님과의 대면신청을 통해서 자문을 구하기도 하였고, 특히나 5학년들은 모형작업은 집에서 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설계실과 빈 강의실들을 나눠서 이용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작품전을 위해 애진하였다.

전남대학교 건축디자인학과는 작년 말부터 kaab 건축인증학을 받기 위해 준비 중에 있다. 작년 이후로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체계적인 설계수업과 디지털로 표현하는 수업, 자신의 아이디어와 과정들을 발표하고 피드백을 통해서 좀 더 각각의 방면에서 좋은 방향으로, 다른 친구들과 비교 경쟁하기도 하고 서로 배우기도 하는 과정을 설계 이외의 수업에서도 배운다.

작년의 졸업작품전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과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고 학생들과의 소통을 위해 많은 회의와 고민을 거쳐 올해는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 교수님들과 그리고 학과의 변화를 열심히 따라주는 학생들까지도 모두 힘을 쏟고 있다.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도 5년 동안의 노력의 결실을 축하와 기쁨으로 나누기 위한 전남대학교 건축디자인학과 졸업전시회는 9월 9일로 예정되었다. 5학년들은 남은 한 달 동안의 지금까지의 과정을 정리하고 다듬는 시간을 가지며, 지금부터 약 한 달 동안의 시간을 후회가 남지 않을 졸업작품전시회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다.

화재에 강하다!

준불연 DK보드

준불연가등급

DK본 EPS 단열재

외단열용(2' X 4')
건축용(3' X 6')
판널용(나등급)

DK보드 건축용은 최적의 무기난연제인 팽창흑연을 비드내에 함침시켜 난연성능이 향상된 소재에 자체개발한 특수 고난연 물질을 도포 마감한 고난연 친환경 준불연 가등급 단열재입니다.

- 준불연재료 공인시험기관 인증
- 열전도율 : 0.032 W/m·k
- 친환경 수성

DK | 주대 광 판 널
주디케이보드